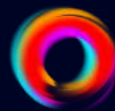


온나의 가설

번역 : Keika Tanehashi



INSTITUTE
OF NEXT
BY INFONOMIA

온나의 가설

오리지널 크리에이터 : 알폰스 코루네라

텍스트 : 지나 쿠로토토 · 일러스트 : 실비아 모리자 · 디자인 : 클로 아스토루자

번역 : Keika Tanehashi

내 이름은 온나.
엄마는 말한다,
나는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 같다고.
그래서 그녀는 나를 온나고양이라고
부른다.

나는 항상 질문하고싶다.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라고
하지만 언제나 답을 찾아내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질문이 있기에
해결 방법을 찾을 수있을 것 같다.

온나의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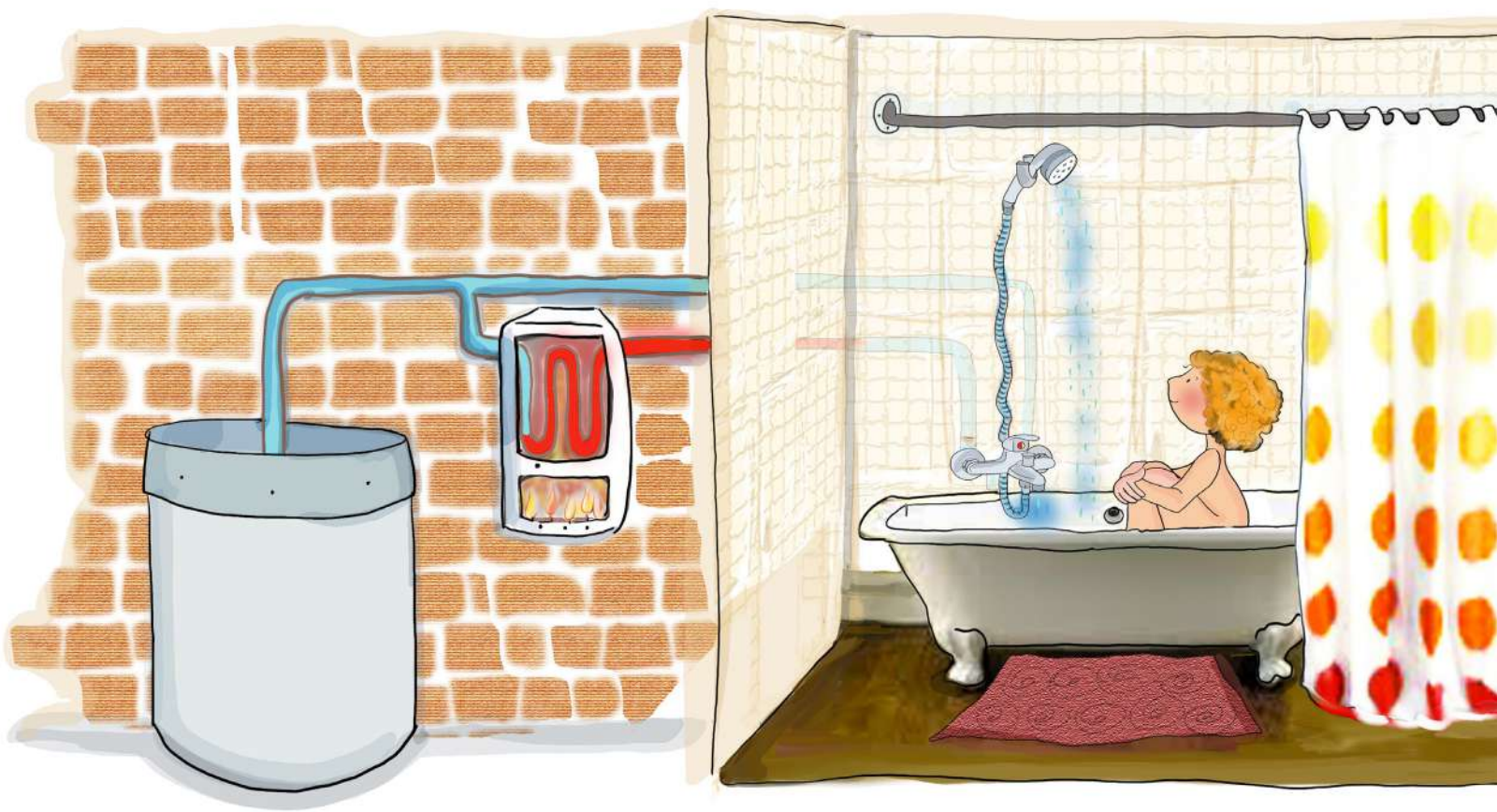


1.

새로운 하루가 시작한다
샤워를하는 동안, 나는 생각한다.

배수구의 깊숙히 살고있는
몬스터는
따가운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흘린 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온나의 가설



2.

나는 나가서도 상상한다 ...

행단보도에 붙어있는
모든 껌
비눗 방울처럼,
떠올라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 스쿠터도 더
속도낼수 있겠는데.

온나의 가설



3.

자, 앉아 수업을 받자.
하지만 내 아아디어는
바닥에 붙어 버릴 것 같다.

만약 내가 그것을 날게하려면
어떻게될까.
내 아이디어가 다
사라져 버릴까.

온나의 가설



4.

엄마는 나에게 왜 코트를 잃어버렸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오라고한다.

하지만 반대로, 내
코트가
나를 찾아온다면?

온나의 가설



5.

나의하루 생활,
내 등엔 항상 책가방이 붙어있다...

달팽이도
허리아플까?

온나의 가설



6.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가 모든 이야기를
영원히 잃지 않는 유리병에
담아 보관한다면?

온나의 가설



7.

할머니와 그녀의 휴대폰
세대차이가 난다 ...

만약 우리할머니 휴대폰이
보시기에 젊은시절에
사용했던
그런 전화모양과
같다고하면?

온나의 가설



8.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용돈을 받았다.

용돈을 많이 모아서 나는
망원경을 사려고한다
그동안 나는
어떤 즐거움을 찾을까?

온나의 가설



9.

나는 돌도 세여보고,
사람인원수도 세여보고 하물며 새들도 세여봤다.
주위에 더이상 세여 볼것이 없다

만약 기다림이
더이상 지루하지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상상해 보았는가?

온나의 가설



10.

집안 방바닥이 깨끗한것이 나는 좋다
바깥도 깨끗했으면 좋겠다.

넌 그것을봤지
나도 보았어.
그럼 누가 주어던지지?

온나의 가설



11.

나는 나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볼수없다

만약 우리가 늘 씨앗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어떨까?

온나의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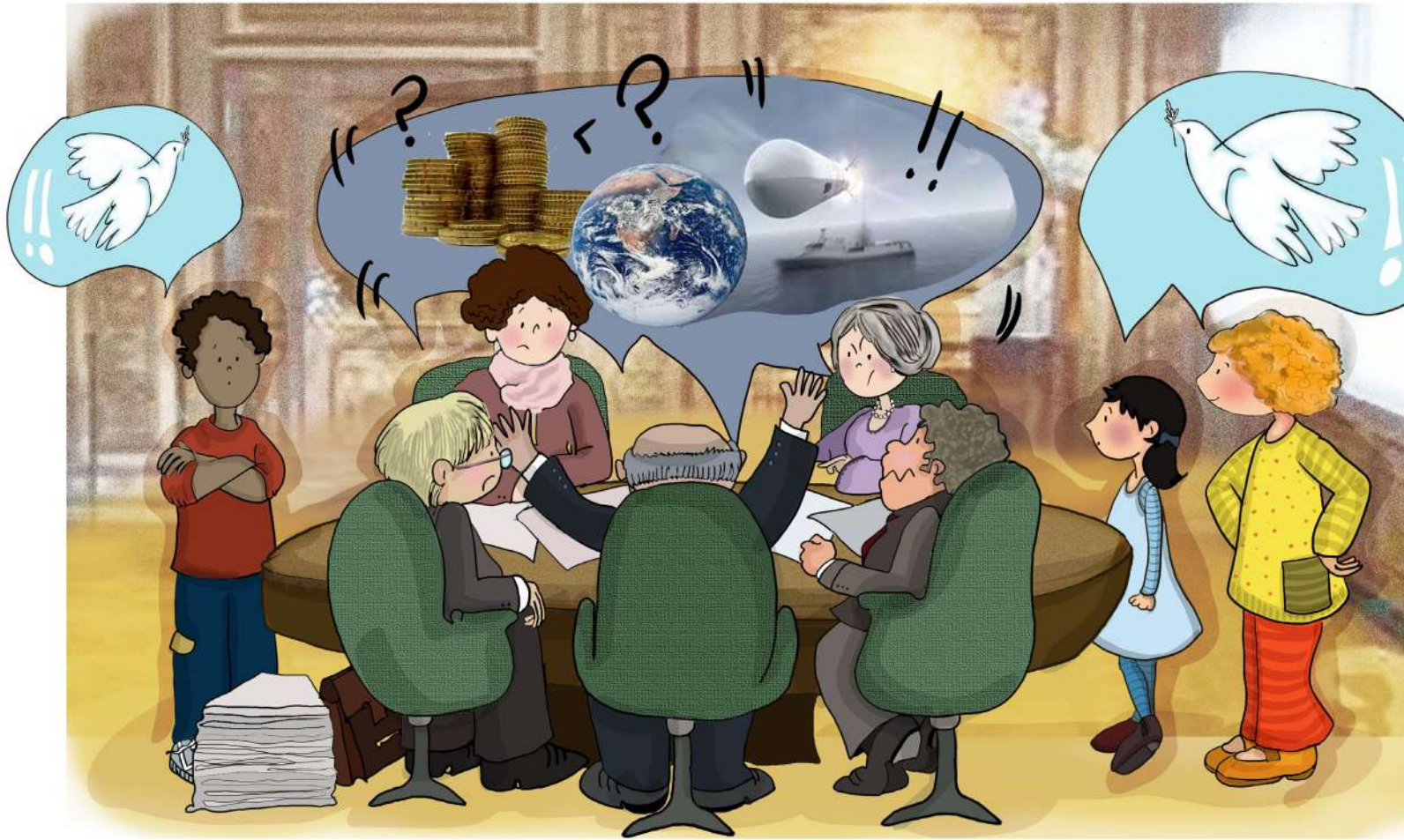


12.

우리의 미래에 대해
왜 오직 어른들만이
선택권 있을까?

그러나 우리
소년소녀들한테는
더 많은 미래가 있는데...
만약 그들이 먼저 우리한테
묻는다면?

온나의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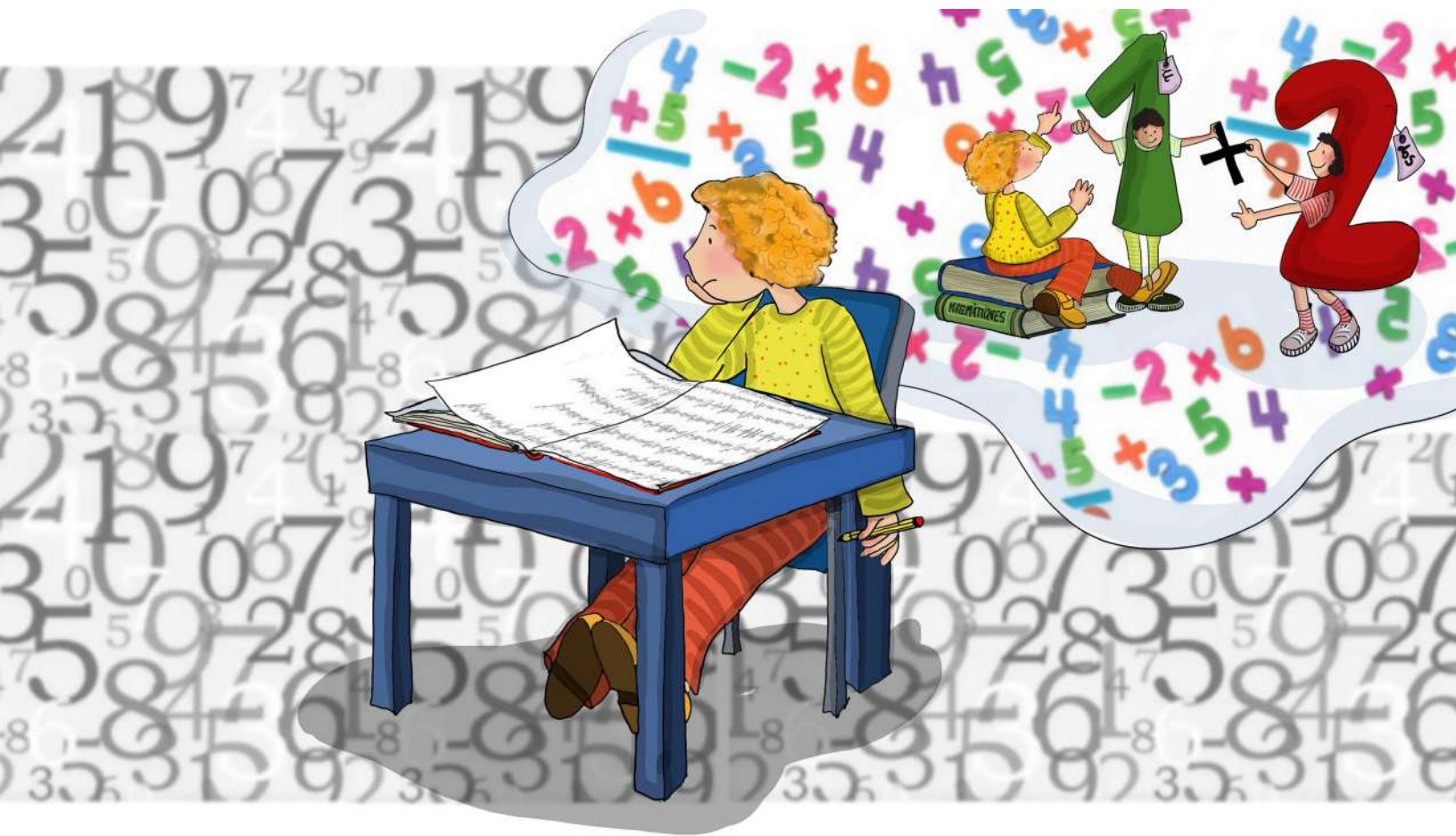


13.

숙제라는것을 발명한 사람은
아주 할일없는 얼간인것 같다.

만약 수학 문제를
게임하듯이 풀면
어떨까?

온나의 가설



14.

나한테 언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인 클로이처럼 나를 도와 줄 것이다.

만약 내가 입양할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온나의 가설



15.

어머니도 Shorofsky 교수한테
바이올린을 배웠다.

내가 연주하는 음악은
옛날식이다.
이런 수업은 꼭 이렇게
오래묵은 방식이여야
하는가?

온나의 가설



16.

페팅룸에서
옷을 맞춰보는것은 일종 곤역이다.

거울아, 벽에있는 거울아,
내몸에 꼭 맞게 입은 모습을
누가 알아줄까?
양말조차 벗지 않아도
알수있는 사람...

온나의 가설



17.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옷을 입고있으면
견딜수없다.

그래서 나 스스로 옷
만들기로 결정한다.

온나의 가설



18.

아빠는 세탁기가 고장나
아주 걱정이 크시다

어떻게 고칠수있는지를
전문가는
나한테 가르쳐줄수있다.
그럼 난 그에게
“젖은 숙제 ‘를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 알려줄수있다
그게 내 노하우이니깐!

온나의 가설



19.

여동생이 울 때
쪽쪽이를 주면
모두 해결할 수있다.

쪽쪽이 하나 있으면
엄마,아빠도 편해질수
있지않을까?

온나의 가설



20.

하루가 끝났다.

나는 확신한다.우리 모든사람들이
귀가후 학교는 아주 적막하다

만약 우리가 문을 열어
학교 삶을
우리 생활속에 들어오게
한다면?

온나의 가설





오리지널 크리에이터 : 알폰스 코루네라

텍스트 : 지나 쿠로토텐토

일러스트 : 실비아 모리자

디자인 : 클로 아스토루자

초판 : 2018 년 1 월

번역 : Keika Tanehashi

온나의 가설

내 이름은온나.
엄마는 말한다,
나는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 같다고.

그래서 그녀는 나를
온나고양이라고 부른다.

나는 항상 질문하고싶다.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라고
하지만 언제나 답을 찾아내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질문이 있기에
해결 방법을 찾을 수있을 것 같다.



INSTITUTE
OF NEXT
BY INFONOMIA